

수성빛에서 날다

김창환
3500x1400x1300mm
스테인레스 스틸

손쉬운 자유로운 곳이며 생성과 활기를 가진다. 광택이 번디가 되어 손쉬운, 번디 광택이 수성빛 위를 날고 있다. 수성빛에 번디에 서는 상어가 나타난다. 우리가 상상한 한 단어가 실재로 일어난다. 이 자체로 재미있고 놀라운 일이다. 상어의 출현은 수성빛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상상과 행복의 추억이 될 것이다.

치유터널

노 열
10000x2500x4000(H)mm
사각철재, 비닐, LED

잠시 걸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다. 최근 코로나와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언어가 함께 모른게 모두가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 같다. 따뜻한 빛과 밝은 색을 느끼며 잠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무상무명의 공간 그곳이 자유의 터널이다.

상화, 광야(光野)를 멎하다

배수관
3700x2100x4000(H)mm
스테인레스 스틸 위 우레탄 도장,PVC연필비닐,LED조명

수성 빛이라는 장소성과 역사 속 시간 이상화, 그리고 그의 친구 이재 시를 빛이라는 주제로 관계지어 적용하였다. 상화 동산과 함께 이상화의 문적이 남아있는 수성못 주변의 이러한 역사적 장소성을 복제하여 광복 78주년이 된 현재 상화가 수성못을 찾아 화려한 빛으로 눈부신 수성물방울을 멎하게 내려다 내려다 보면서 무슨 생각에 잠길까?

따뜻함의 전도

영남대학교(YU트랜스아트)
130x80x300cm
철

수성빛예술제에 참가, 관심 해려 온 모든 사람들을 반기는 편지가 찾아왔다. 편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따뜻함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익한 기운을 찾아내주 역할을 한다. 그런 편지가 수성빛예술제에 온 모든 사람들을 지어준다.

Pin Point

영남대학교(SSCK)
160x80x300cm
나무, 방수 스티커, led

'Pin Point'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나 관계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구멍 뚫은 판 포인트는 지도상의 장소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만 이 작품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담겨있다.

수성못 1915

경북대학교(과치와)
150x150x300cm
스틸,FRP

대구시인이라면 익숙하고 친숙한 곳 수성못(이천) 광장을 가지지 않았다면 낯선 이야기기, 처음 눈길을 자주사로 속조치고 현재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수성못이 존재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양수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잊혀진 나에게 빛을

계명대학교(조이윤)
100x100x100cm
아크릴

'잊혀진 나에게 빛을'은 사람이 살면서 잊어지는 모든 관계를 보여준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여러 가지 관계 중에서 가장 쉽게 소홀해지는 나와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현대인들의 자존감과 우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love myself'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수달들의 하모니

대구대학교(브라이트)
300x145.5x130cm
아크릴, 논네온, LED

사람과 수달이 관계하는 새로운 위한 멜로디를 불러주는 아름다운 시화였다. 사람들은 점점 수달들과는 달리 새로운 위한 멜로디를 부르지 않게 되는 사회적 바뀌어가는 것을 보며 앞으로의 사회가 새로운 위한 멜로디를 불러 줄 수 있는 빛과도 같은 곳인 빛을 바라고 그것을 적용화 하였다.

Baobab Yudong

대구가톨릭대학교(인터미디어학과)
300x100cm
특수 원단, 송풍기

바오밥 나무의 단단한 이미지는 안정감과 포근함을 준다. 생명력과 생동력을 상징하는 바오밥 동화어 상의 여러줄을 극복하는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것이다. 바오밥 나무처럼 여러 세대가 관계를 맺으며 이야기기 되고 싶어할 것이다.

별

이강훈
2700x1500x5900(H)mm
혼합재료(강화플라스틱 외)

일상을 함께 하는 가까운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동화 어린 왕자의 행상을 기념비적인 형태로 해석 하여 보편성과 친근한 이미지를 구현한다.

스테인드 글라스

이시영
240cmx240cm
강철

중세 고딕 양식(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영감을 받았다. 빛의 형이상학적 완성뿐만 아니라 조화의 미를 찾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시 시 가로 240cm x 새로 240cm 이상 크기로 계획중이다.

달빛 토토

경북대학교(토동이)
150x3000x2000cm
FRP

빛나는 동행이들 사이에서 아픔을 보여 주석하는 토이토기 '토토'를 통해 일상이 사라지던 현대인에게 동화 같은 장면을 전달하고자 한다.

문(gate)

대구예술대학교(1팀)
600 x 150 x 240cm
각파이프, 줄 LED, 광섬유, 원봉

문(gate)은 과거의 변화와 미래를 위한 희망의 입구이다. 이 작품을 통해 수성빛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상징과 현재의 상징을 동시에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준비하는 시기에 새로운 이상과 비전을 꿈꾸며 활기를 내어 문물 두리라는 다짐이 되고 희망한다.

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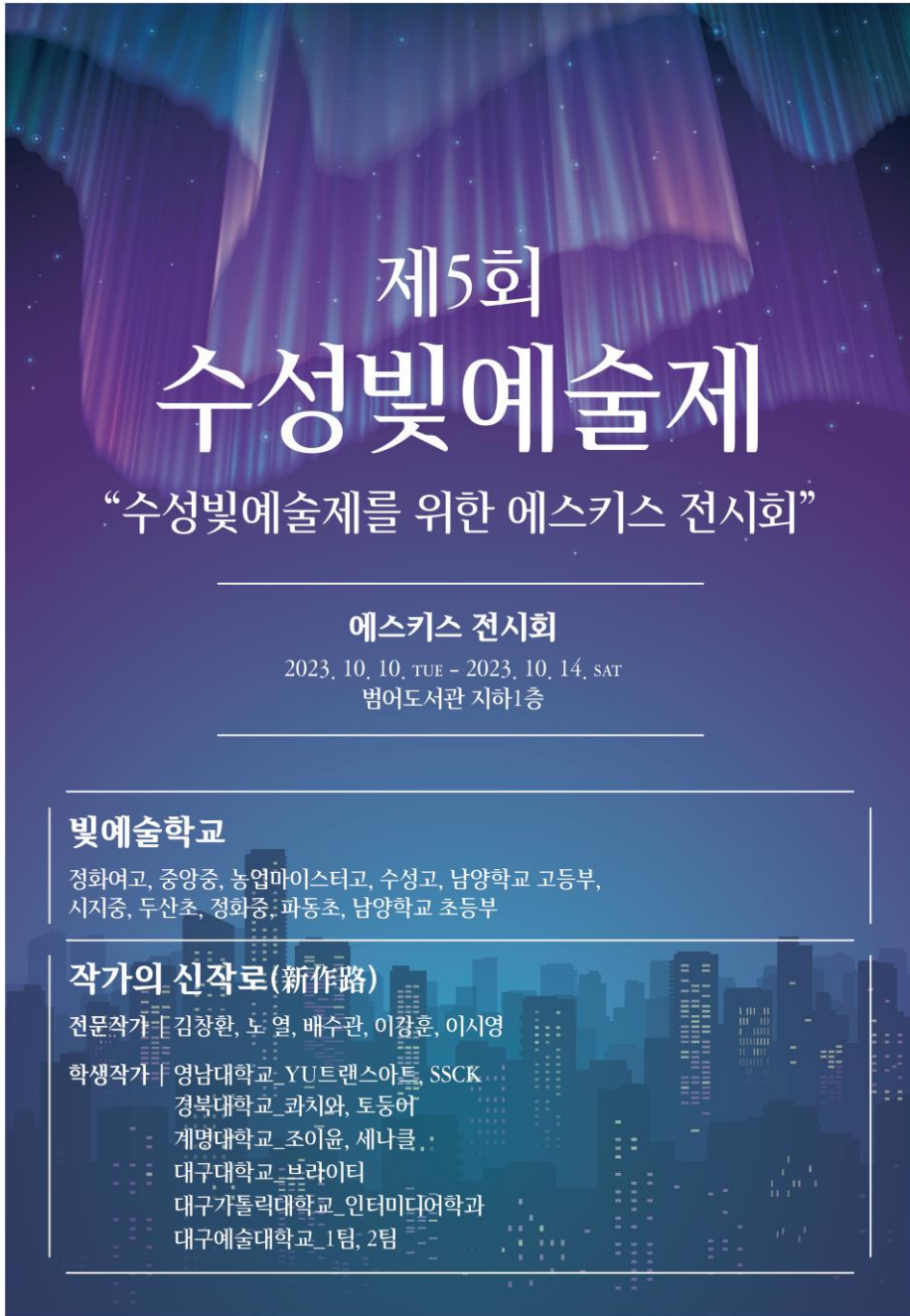
대구예술대학교 (2팀)
170 x 300 x 180cm
각파이프, 줄 LED, 원봉

수성빛의 아름다운 자연과 선택물을 따라 걷는 아이들, 어른신, 반려견과 함께하는 장면을 수성못과 함께 했던 대구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다. 앞으로도 함께 할 대구시민들을 상징하며 항상 너와의 삶과 동행과 오해받았어 수성빛의 사랑, 사람의 수성빛으로 밝혀지게 되길 희망한다.

로컬리티(locality)

계명대학교(세나클)
50x50x200cm
합판 및 목재

이번 수성빛예술제의 주제인 '관계' 우리는 이곳 대구와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다. 대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타자의 입장에서선 우리가 대구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제5회 수성빛예술제

“수성빛예술제를 위한 에스키스 전시회”

에스키스 전시회

2023. 10. 10, TUE - 2023. 10. 14, SAT
범어도서관 지하1층

빛예술학교

정화여고, 중앙중, 농업마이스터고, 수성고, 남양학교 고등부, 시지중, 두산초, 정화중, 과동초, 남양학교 초등부

작가의 신작로(新作路)

전문작가 | 김창환, 노 열, 배수관, 이강훈, 이시영

학생작가 | 영남대학교, YU트랜스아트, SS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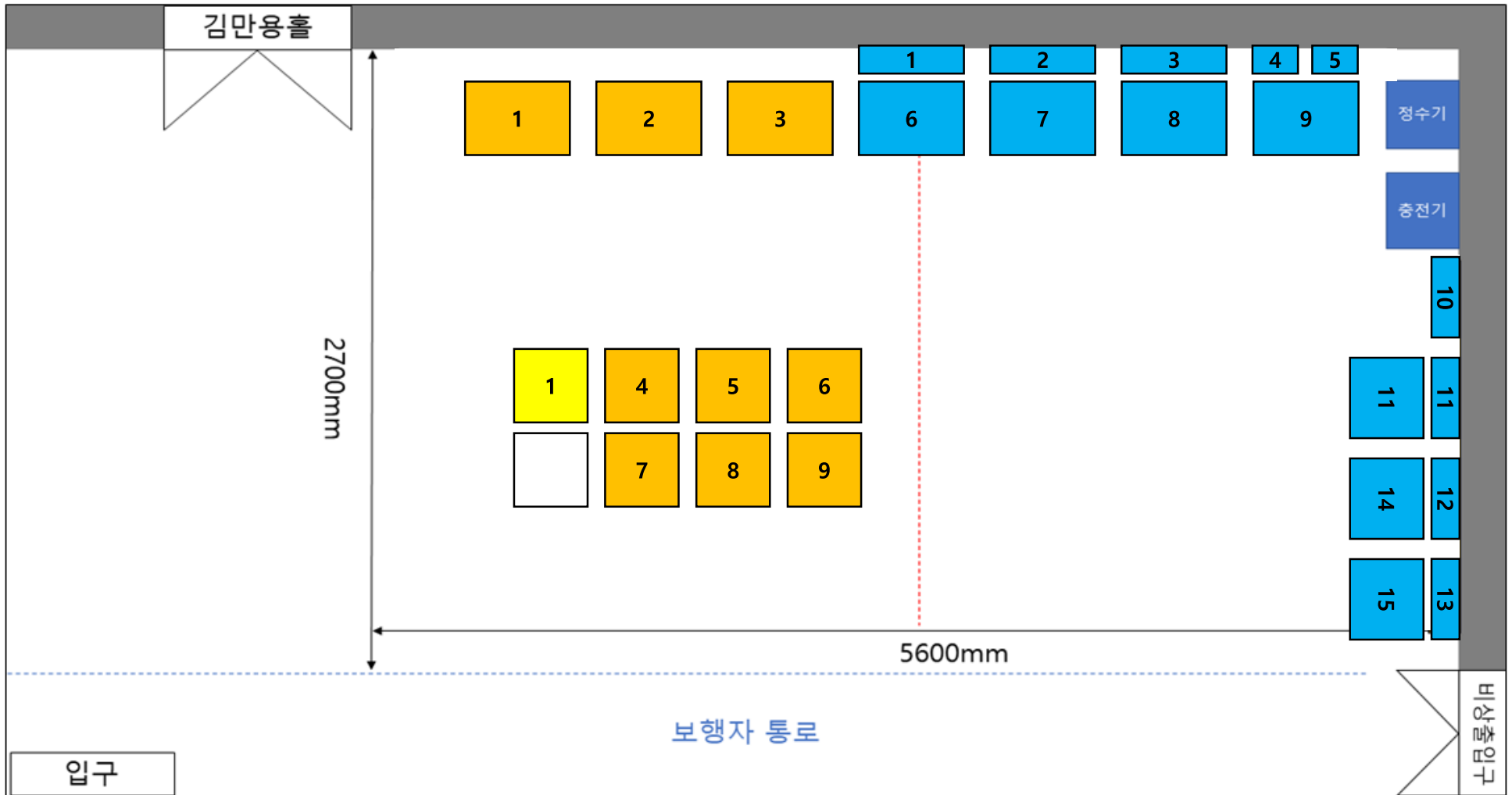
경북대학교 과치와, 토동이

계명대학교 조이윤, 세나클

대구대학교 브라이트

대구가톨릭대학교 인터미디어학과

대구예술대학교 1팀, 2팀



기획콘텐츠

1. 수성빛하모니 - 정세용

수성빛예술학교

1. 피아노 기차길 - 중앙중
2. 희망숲 - 정화여고
3. 라이팅터널 - 정화중
4. 그림자놀이 - 시지중
5. 은하수 - 수성고
6. 생명의 빛 - 농업마이스터고
7. 빛의 놀이터 - 남양학교 초등부
8. 별빛 빌리지 - 남양학교 고등부
9. 빛의 노래 - 두산초

작가의 신작로

1. 로컬리티 - 계명대 세나클
2. 수달들의 하모니 - 대구대 브라이어
3. Baobab yudong - 대가대 인터미디어학과
4. 문 gate - 대구예대 1팀
5. 무제 - 대구예대 2팀
6. 따뜻함의 전도 - 영남대 YU트랜스아트
7. 수성못 1915 - 경북대 과치와
8. 달빛 토토 - 경북대 토동이
9. Pin Point - 영남대 SSUK
10. 잊혀진 나에게 빛을 - 계명대
11. 상화, 광야를 명하다 - 배수관
12. 스테인드 글라스 - 이시영
13. 수성못에서 날다 - 김창환
14. 별 - 이강운
15. 치유타널 - 노열